

# THIS KOREANLIFE

2009년 9월, 가을호

애런과 은영이의 미국 여행기

웰컴 투 어메리카~



오리건

로스  
엔젤레스



애런 가족 pg.8-9

두 장의 의미있는  
편지 pg. 10



1



2



- 1 외할머니집 정원
- 2 오늘 저녁은 불고기!
- 3 태권도 시범
- 4 부모님 주례목사님의 집



4

**이번 여름 미국여행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미국은 지리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종적으로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 잡지에 실린 사진 몇 장 만으로도 이런 미국의 다양성을 맛보기에는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서부 해안에 위치한 오리건과 캘리포니아주를 여행하고 왔습니다.

오리건 포틀랜드시에서부터 캘리포니아 주의 LA까지 가는 36시간의 기차여행을 하는 동안 미국의 광활하고 다양한 자연 경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밀밭과 육중한 크기를 자랑하는 호수, 강, 바다, 대양, 큰 산맥이 이어진 다양한 모양의 높은 산들.... 울창한 소나무가 보이다가 곧 사막과 같은 땅에 선인장이 보이고 곧이어 붉은 노을에 이국적인 야자수 나무가 그 자태를 자랑했습니다. 너무 길다 생각했던 36시간이 3시간인양 느껴졌으며 내리는 것이 아쉬웠다고 하면 이해 하시겠지요? 이것이 수많은 미국의 볼거리 중의 지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랜드캐년, 뉴욕의 화려한 도시야경,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등지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더 편안한 곳이거든요. 한국의 장점을 말하자면 끝이 없지만 먼저, 한국의 음식은 야채가 많이 들어가 몸에 매우 좋죠. 한국의 문화, 관습, 전통은 미국이 제공하는 자연경관만큼이나 화려하고 독특해요. 언제든 손쉽게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미국보다는 훨씬 좋은 의료보험제도가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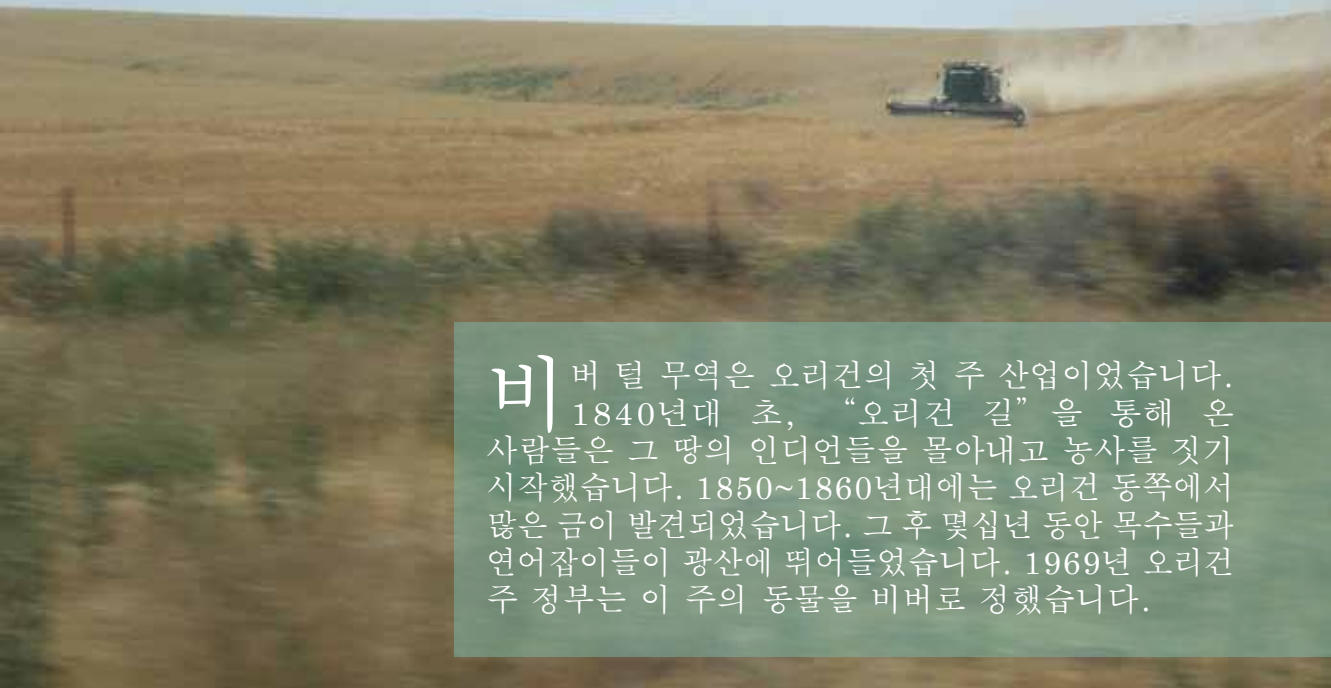
미국 사람들은 여가시간을 매우 즐기며 여가를 위해 필요한 시간, 비용을 아끼우하지 않습니다. 여가를 즐기기 위해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국과 비교해 볼까요? 한국 사람들도 나름의 여가를 즐깁니다. 그러나 미국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집중해서 열심히 합니다. 일을 많이, 열심히 하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것이고 놀기도, 여가를 즐길 때도 열심히 합니다. 저에게는 이런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극을 받으며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곳의 사람들과 걸음을 같이 하기 위해 저 또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어떻게 이곳에서 오래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미국 여행을 담은 제 손때가 묻은 이 잡지를 읽으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

# 오리건: 비버의 땅

~ 팬덜튼, 러그랜드



비버 털 무역은 오리건의 첫 주 산업이었습니다. 1840년대 초, “오리건 길”을 통해 온 사람들은 그 땅의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1850~1860년대에는 오리건 동쪽에서 많은 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몇십년 동안 목수들과 연어잡이들이 광산에 뛰어들었습니다. 1969년 오리건 주 정부는 이 주의 동물을 비버로 정했습니다.

오리건은 매우 다양한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태평양 해안을 따라 아름다운 장관이 펼쳐지고 캐스캐이드 산을 따라 화산을 볼 수 있으며 뾰족한 사철나무 숲과 동쪽에 펼쳐진 높은 사막지대도 볼 수 있습니다. 후두산은 3,429미터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윌라밀 협곡은 비옥한 토양을 제공해 감자, 패퍼민트, 사과를 비롯한 다양한 과일을 생산케 해주었습니다. 오리건은 세계에서 4번째로 해이즐넛을 많이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미국 해이즐넛 시장의 9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와인 생산지

로도 유명한데 2005년에는 미국에서 3번째로 많은 와인을 생산해 내기도 했습니다. 오리건 포틀랜드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맥주공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리건 북동쪽에 있는 팬덜튼시에는 끝없이 펼쳐진 밀밭이 장관입니다. 오리건 농부들은 소고기, 양고기, 유제품, 계란, 닭고기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연어 포획지로도 유명합니다.

애런과 은영이가 오리건에서 무엇을 했느냐구요?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들, 그리고 휴가를

맞은 사촌들과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리건길” 박물관, 미국 인디언 박물관, 지하도시 투어, 양털공장 등을 방문하느라 일정이 뽀뽀했으며 개인적으로 할머니, 엄마, 여동생과 같이 한 쇼핑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또, 외할아버지 보트를 타고 강에 가서 직접 보트를 운전해 보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답니다.

애런 가족은 처음 보는 저를 애런과 똑같이 친 자식처럼 잘 대해 주셨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뚝뚝 나눠 주셔서 있는 동안 내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

# OREGON



1



2



3



4



5

- 1 할머니 집에서 “멕시  
코 기차” 도미노 게임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  
고 있는 가족들
- 2 외할머니 다나와 외할  
아버지 컬트의 그림과 같  
은 집과 정원~
- 3 해질녘 그 정원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  
우리들
- 4 인디언 박물관에 있는 인  
디언 가옥들
- 5 “오리건길” 박물관에  
있는 흰 천으로 덮인 짐  
마차에 올라탄 애런과 나



6



7

6 외할아버지가 강에 보트를 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7 짜잔~난생처음 보트의 운전대를 잡아본 은영..신났다....

8 펜덜튼 지하도시 견학...있을 것은 다 있었다...술집,아이스크림 가게, 정육점, 세탁소...그리고 공중 목욕탕까지...

9 펜덜튼 양모공장 견학...양의 몸을 막 떠 나온 신선한 양털이 어떻게 멋진 카페트, 이불로 변신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다. 핑크색 이불을 외할머니로부터 선물로 받았다...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불이다!

10 쇼핑을 즐기고 있는 나.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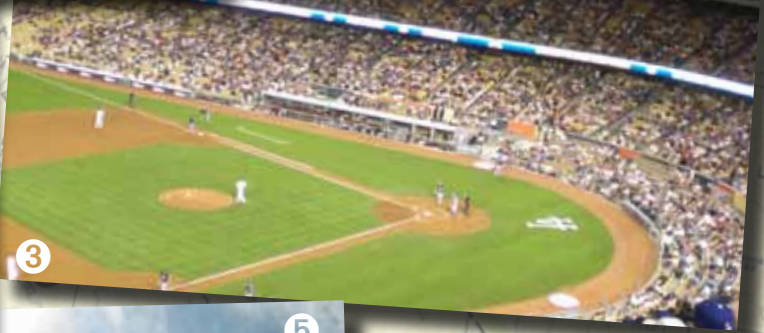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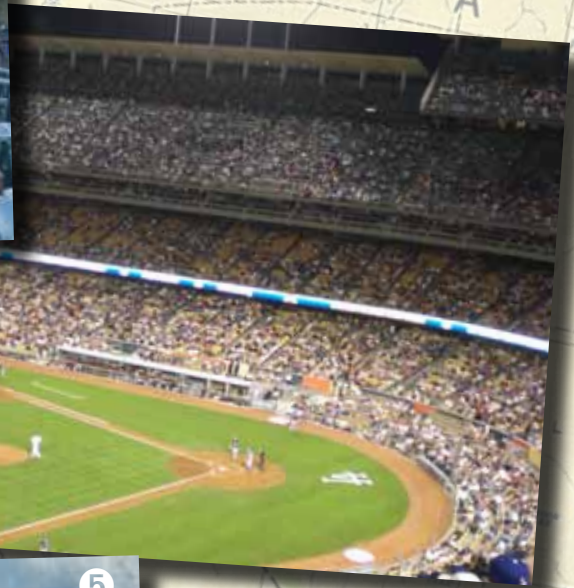


9



10

# LOS ANGELES



# “천사의 도시”

- 1 30시간의 기차여행을 떠나기 전 찰칵~
- 2 LA다저스 야구 경기장에서..
- 3 경기장의 관중의 열기가 느껴지는지....
- 4 마침내 태평양 해변에서 선댄을...이 바다를 건너면 부산이 나올것이다..
- 5 저 비행기를 타고 오늘 한국으로 뗏어야 하는데....그래도 덕분에 우리는 해변의 연인~~^^
- 6 한국행 비행기표를 위한 애런의 필사적인 노력....

로스앤젤레스의 주민 절반은 미국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진 도시이다. 멕시코 시티와 과달라하라 도시를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멕시코인이 많은 도시이기도 하다. 140개국 이상에서 온 사람들과 224개의 언어가 있다. 한국인타운, 중국인타운, 필리핀타운, 작은 도쿄, 작은 아르메니아, 태국타운, 작은 페르시아, 작은 인도 등이 있다. 게이들에게 우호적인 도시로 잘 알려져있으며 할리우드에는 무지개가 그려져 있다. ●

천사의 도시 LA는 세계의 관광 왕국 중 하나이다. 그 유명한 할리우드가 있으며 영화, TV, 음악의 본거지이다. 완벽해 보이나 완벽과는 조금 거리가 먼 곳...

완벽한 계획, 완벽한 삶, 완벽한 휴가... 하지만 현실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 않던가...어느정도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안다.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으며 도처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뻔처럼 도사리고 있다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젖어들어 편안함을 맛보다가 이런 사실을 잊곤 한다. 하지만 바로 이런 때, 축구의 바나나킥처럼 예상치 못한 일들이 뱅뱅 터지곤 한다.

우리의 바나나킥은 바로...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으니 바로 비행기표였다.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표를 두장이나

새로 사야했고 일정보다 하루 늦게 한국에 오게된다. 하지만 경험을 통해 배우는것!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잃은 것보다 얻은게 많다. 애런이 존경하는 빌목사님은 말했다:

“하나님 안에서 믿는자의 삶은 인내와 고난을 견디는 것이지. 이러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정말 잘했네. 자네들은 포기하지도, 자제력을 잃지도 않았으며, 상황에 지배당하지않고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결했어.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한다” 라고 했지. 값으로 따질수 없는 보석을 갖게 된 두 친구여!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기도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은 그 누구도 빼을 수 없는 영원한 재산이 될것이네.”●

# 스노버거 가족 알렉산더 가족 보히스 가족



# FAMILY



## 엄마&아빠(로빈 스노버거&브루스 스노버거)

아빠(63),엄마(53)는 결혼하신지 30년이 되셨다. 두 분은 결혼하신 후 바로 오리건에서 로키산맥에 있는 와이오밍으로 이사를 하셨다. 차로13시간을 달려야 친정 부모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슬프게 했을것이다. 지금처럼 그곳을 좋아하게 될지도...세 아이를 낳아 기르게 될지도 그때는 몰랐다. 록스프링스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첫 아이(애런)를 낳고 이 아이와 사랑에 빠져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기로 하셨단다. 그 후 15년동안 세 아이를 사랑으로 기르시고 다시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셨다. 아빠는 화력 발전소에서 기술자로 30년동안 일해오고 계신다. ●



## 할머니(유라 스노버거)

할머니는 84세이고 12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오웬 스노버거)와 49년 9개월의 결혼 생활을 하셨다. 우리 가족은 크리스마스때마다 온 가족이 할머니 댁에서 모이는 시간을 갖는다. 할머니는 펜델튼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셨다. 정신병 환자들을 돌보시기도 했고 교도소의 환자들도 돌보신적이 있으시다. 할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때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에서 비행기 용접사로 일을 하셨다. 전쟁 후 미국으로 돌아오셔서 오리건주의 펜델튼에서 결혼하셔서 밀 수출 회사에서 일을 하셨다. 3남 1녀를 두셨고 애런 아빠가 큰아들이시다. ●



## 외할아버지&외할머니(컬트 알렉산더&다나 알렉산더)

외할머니(73),외할아버지(76)는 결혼 52주년을 맞으셨다. 1남 1녀를 두셨고 애런 엄마가 첫째 딸 이시다. 할아버지는 호다까라는 일본 자동차 회사에서 자료 수집,개발하시는 일을 하였고 사업상 일본에도 다녀오셨다. 본인 스스로 차를 디자인 하셔서 만드셨고 미국에서 다섯 손가락에 드는 시코르스키 헬리콥터 기술자로 일하시는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다. 할머니는 캘리포니아 서부에 있는 보험회사에서 9년동안 일하셨고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두셨다. 그 후 아이 들을 키우며 17년 동안 펜델튼 교회에서 교회학교 간사로 봉사하셨고 지금도 유년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열성적인 선생님 이시다. ●



“ 애런 가족과 정말 멋진  
한때를 보냈어요. 벌써  
그들이 많이 보고 싶어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이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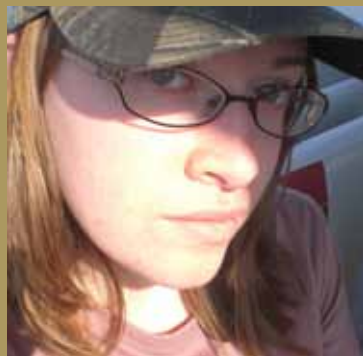
### 남동생 (탐 스노버거)

27세이고 애런보다 19개월 동생이다. 애런과 같이 2년 반동안 와이오밍 주립대학에서 중국어를 공부했고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2005년 여름, 애런과 탐은 중국 산동에 있는 전문대에서 한달동안 영어를 가르쳤는데 애런은 고등학생을, 탐은 초등학생을 가르쳤는데 이를 통해 애런은 영어 선생님의 매력을 느꼈고 반면 탐은 영어선생님의 길에 회의를 느꼈다고 한다.^^ 대학 졸업 후 친구와 같이 살며 여러가지 일을 해 보았지만 아직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지 못해 계속 탐구중이다. 지금은 부모님과 같이 지내면서 직장을 알아보고있다. ●



### 여동생 (메건 스노버거)

23살이고 애런과 매우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행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며 새로운것을 경험해 보는것을 좋아한다. 프랑스어를 7년동안 공부해오고 있으며 작년에는 프랑스의 투르스에있는 대학에서 프랑스어를 공부했다. 와이오밍 대학교에서 중국어를 1년동안 공부했다. 현재 와이오밍 대학교 4학년인 그녀는 두개의 주전공-사회학과,국제학-을 했고 프랑스어와 아시아학과를 부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다. 내년 봄에 졸업 예정이며 졸업후 대학원을 갈지, 직장을 잡을지, 오빠 애런처럼 아시아에서 영어를 가르칠 지 고민중 이란다. ●



### 보히스(빌, 선희, 진솔, 세나)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가족과 같은 분들이다. 빌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선희는 한국인이다. 안디옥교회 영어예배 담임 목사님으로 3년간 사역하시고 지금은 미국 LA에서 사역하고 계신다. 빌목사님은 애런이 안디옥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후 신앙 선배로서, 멘토로서 1년 반 동안 함께 성경공부를 했다. 빌과 아내 선희는 늘 우리를 지지해 주셨고 이번 미국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티켓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때에도 큰 도움을 주셨다. 바쁜 일정 중에도 우리와 같이 공항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주신 분들이다. ●



# 어머니, 아버지께

어머니, 아버지! 정말 예쁜 딸을 두셔서 행복하시죠? 두 분 모두 은영씨가 보석처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 두분께서 은영씨를 이렇게 사랑하고 돌보아 주시는지 백번 이해가 갑니다. 두분은 은영씨에게 큰 축복이며 은영씨도 두분께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스엔젤레스에서 생긴 문제, 은영씨 원룸 문제, 저희의 미래 등등 저희도 삶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려움에 처해보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통해 저는 은영씨가 얼마나 참을성이 많고 긍정적인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문제 앞에서 절망할때 은영씨는 제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성경 전도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12

한국인이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낯선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미국인 사위를 맞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 되시라는 것도 잘 압니다.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저희 둘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중개자로서 함께 하는 한 저희는 폭풍과 같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쉽게 부서지거나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의 삶이 부모님이 보시기에 완벽해 보이지 않아도 저희의 완벽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지켜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둘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셀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까이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미국에서 비행기티켓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그랬고, 은영씨의 원룸 문제, 초등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고 기도할 때도, 새 집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은영씨와 결혼을 통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은영씨에게 잘 하고 부모님께도 막내 사위로서 잘 하겠습니다. 부디 저희의 결혼을 축복해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막내 사위 애런 올림.



# 애런, 은영에게

비행기 티켓 문제로 상심이 클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네. 비행기표를 다시 사야하는데 돈은 반드시 돌려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네. 내가 이 일이 일어난 것을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난관을 헤쳐 나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 내가 심히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야. 애런, 곧 자네는 “내가 그때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하고 자신을 탓할지도 모르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같은 상황에 있었을 다른 열 사람들보다도 이 일을 훨씬 잘 처리했다고 보네. 두 사람과 보낸 시간을 통해 곧 이루게 될 가정을 엿볼 수 있었다네. 나는 스스로에게 “내가 3년 전에 만난 그 젊은이가 진짜 맞나?” 하고 물을 수밖에 없었지. 이번 생각지 않게 생긴 문제를 대처하는 둘을 보며 성령께서 자네들의 삶에 크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네.

티켓으로 손해본 돈이 얼마든 상관없이 두 사람이 도전받은 믿음과 사랑의 진한 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거야.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첫째, 두 사람은 이 일을 “함께” 해냈네. 둘째,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 주었네. 셋째,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네.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의 사랑의 따스함의 정도가 식지 않았다는 것이네.

애런, 이렇게 멋지게 성장해 준, 곧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할 자네가 정말 자랑스럽네. 두 사람을 통해 나 또한 큰 축복을 받았다네. 자네 아버지께서 여기 계셔서 자네가 한 일들을 다 보셨으면 좋았을텐데... 아버지께서 나보다 훨씬 자네를 자랑스러워 했을거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오늘의 삶을, 그리고 앞으로로도 계속 축복해 주시길 기도하네.

빌 보히스 목사님

